동국대, 대학생 전법불사 중심으로 부상

서울캠퍼스 경찰 · 예술대학에
불교동아리 창립법회 잇달아
3개 단과대 불교동아리 탄생

WISE캠 '대학생전법단' 출범
내년까지 800명 불자 목표로

신중일 · 이민우 기자


동국대 WISE캠퍼스에서 출범한 WISE대학생전법단. 학생들이 백주년기념관 앞에서 동국대를 상징하는 색의 종이를 들고 '전법'이라는 글자를 표현했다.

조계종립 동국대가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전법단 구성 등 대학생 전법불사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는 4월 18일 정각원에서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진선미'의 창립회원은 학부생 113명, 대학원생 17명으로 총 130명으로 구성됐다.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 지도법사에는 은산 스님(동국대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박사과정)이, 지도교수에는 정달영 동국대 예술대학장, 이수예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교수, 이주원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교수가 위촉됐다.

앞서 15일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불교동아리 '캠폴스테이'가 정각원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청년 대학생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전할 것을 서원했다. '캠폴스테이'에는 경찰사법대학 재학생 97명과 대학원생 33명 총 130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도법사에는 동국대 일반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만경 스님이, 지도교수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조영일 교수와 이창배 교수가 위촉됐다.

동국대는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이 창립된 데 이어 경찰사법대학 '캠폴스테이', 예술대학 '진선미'가 창립되며 총 3개의 단과대학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 창립법회.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건학위원장이자 이사장으로서 동국대 재학생 1만 8000여 명 중 불교를 주춧돌로 삼고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걱정과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이 고민이 희망과 웃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우리 동국인 모두가 불교소모임을 통해 동국대의 정체성과 건학 이념 구현에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 26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야사와 그의 친구들이 21세기에 환생해 이곳 정각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불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깨어나 열심히 부처님 법을 따르고 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2600년 전에도 있었듯 오늘날 여러분들이 불교 중흥과 동국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 류완화)는 4월 16일 교내 정각원 법당 및 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에서 'WISE대학생전법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WISE대학생전법단'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대학생 전법 확대 및 불교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출범하게 됐으며 2024년까지 800여 명의 청년 대학생 불자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창단된 불교동아리를 이끌어 줄 지도법사에는 능견·진욱 스님이, 지도교수에는 김은경·주수언·엄익선·배성현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출범식에서 류완화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WISE대학생전법단이 출범하는 오늘은 매우 의미 깊은 날"이라며 "불교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갖고 전법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정각원장 철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출범한 WISE대학생전법단 여러분들은 학문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고 늘 봉사하고 수행을 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WISE대학생전법단 구성원은 출범식 후 참석 인원 모두가 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에서 전법 글자 만들기 퍼포먼스를 통해 대학생 전법의 의지를 다졌다.

인묵 스님, 광동학원 13대 이사장 취임

남양주 광동중 · 고교서 취임식
법인 산하학교에 발전기금 지원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광동학원 제1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사진〉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4월 12일 남양주 광동중·고교 운악관에서 제13대 이사장 인묵 스님 취임식을 봉행하고, 광동학원 설립자인 운허 스님(1892~1980)의 인재 양성 원력을 계승키로 다짐했다. 인묵 스님은 지난 2월 광동학원 제404차 이사회에서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1월 27일까지다.

인묵 스님은 취임식에서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한 운허 스님과 명예이사장인 월운 스님의 대원력을 계승해 불교의 자비정신을 펼쳐 봉선사와 연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스님은 "교직원·학생·학부모·동문회·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광동학원이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전하도록 이끌겠다"며 "광동학원은 78년의 전통과 교육성과



의 기반을 가진 명문사학으로서 서울과 경기 북부의 엘리트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변화와 도약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인묵 스님은 이 같은 학교 발전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이날 산하학교 3곳에 발전기금 총 5000만원을 전달했다. 더불어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인 호산 스님도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하며 광동학원의 발전을 기원했다.

봉선사 선지식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인 일면 대종사는 격려사를 통해 건학이념 구현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면 대종사는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재 교육에 있다고 강조한 운허 스님의 '교육입국' 정신을 강조한 뒤 "한층 더 수준 높아진 광동학원을 만들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광동학원 발전이 봉선사 발전이고, 이는 곧 불교중흥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한다. 광동학원이 융성할 수 있게 열심히 돕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취임식에는 불교계뿐만 정관계에서도 수많은 내빈이 참석해 인묵 스님의 광동학원 이사장 취임을 축하했다. 승가에선 일면 대종사와 호산 스님을 비롯해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정원 대종사, 서울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덕림 스님, 불학연구소장 법정 스님, 서울 수국사 주지 보관 스님, 파주 보광사 주지 혜성 스님, 중앙종회의원 허허·법륜 스님, 불교신문사장 오심 스님이, 재가에선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과 김남명 제25교구 신도회장, 자명화 봉선사 신도회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부시장, 김병주 국회의원(남양주을) 당선인과 법인 산하학교 학생을 포함해 600여 명이 운악관을 가득 메웠다.

남양주=윤호섭 기자

"세월호 10주년, 잊지 않겠습니다"

조계종 사노위, 팽목항 해상서
세월호 10주기 추모재 봉행해

2014년 4월 16일 전 국민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슬픔을 새겨 넣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해역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날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총 304명에 달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아직까지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단원고 2학년 6반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양승진 교사, 일반 승객 권재근 씨·권혁규 군)이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도하는 추모재가 10년 전 참사가 발생한 해상 위에서 봉행됐다.〈사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세월호 10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4월 13일 유가족들과 함께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세월호 참사 현장을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재 및 미수습자 수습 발원 기도회'를 봉행했다.



배를 타고 두 시간여를 나간 끝에 도착한 바다에는 이곳이 10년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현장임을 알리는 노란 부표가 떠있었다. 참사 현장에 도착한 스님과 유가족들은 곧바로 준비한 기도회를 봉행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다.

故조은화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아직도 내 딸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고 어디선가 공부하고 있을 거란 생각도 든다"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사노위스님들과 유가족들은 함께 슬픔을 담은 국화를 바다에 뿌리고 희생된 304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마음으로 위패에 불을 붙여 하늘로 날려 보냈다.

이민우 기자

2568년 부처님오신날 및 가정의달 기념 서울 종로구 어르신 초청

2024 쿠무다 찾아가는 봉축 음악회 '꽃피는 시절 추억의 멜로디'

전국 각지 힐링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음악회를 개최해 온 쿠무다는 2024년 세상을 밝고 빛나게 가꾸어 오신 우리 시대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자는 취지로 '찾아가는 봉축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가 더욱 빛나고 풍성하게 진행되길 바라며 유관 기관의 협력과 관내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 2024년 5월 3일(금) 14:00 ~ 16:00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4 마로니에공원

진행 : BBS불교방송 아나운서 오승진 & KNN 아나운서 황범
출연 : 미스트롯 송가인, '칠갑산' 주병선, '존재의 이유' 김종환, 리아킴, 국악인 남상일, 상월비보이단 등
주최 : 문화예술사단법인 KUmuda 明京文化財團 명경문화재단 주관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립·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운영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41 쿠무다빌딩 I 전화 051)702-1300 I 팩스 051)703-2300 I www.kumuda.co.kr